

공약 1순위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

불교계·환경단체 반대에 그동안 보류... 강행 분위기 높아

불교계와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지리산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홍준표 경남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은 앞 다퉈서 케이블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는 8월 중순경 무역투자자진흥회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내용이 포함된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리산 권역의 경우 대책 발표 전 이미 경남 산청, 함양군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전북 남원, 전남 구례군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해당 지자체들은 모두 6·4 지방선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모두 당선된 지역이다.

문제는 경쟁 심화로 인해 그동안 불교계에서 반대해온 수행환경 침해와 환경파괴 등의 목소리가 묻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해당지자체 앞다퉀 대통령 건의 정부, 8월 중순 규제완화 발표 예정 불교계 "경제활성화에 가치 훼손"

다. 정부는 영호남 각 1곳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각 지자체는 자본유치 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구례군을 비롯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동부권 6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공동 협력하기로 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북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청·함양군 등 지리산권 4개 자치단체와 강원 양양군(설악산)·전남 영암군(월출산)이 신청한 내륙형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환경성과 공익성 등 그동안 기준점인 '국립공원 사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북 불교단체 관계자는 "애초 환경파괴



2009년 지리산 천왕봉에서 열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모듬.

우려 때문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규제했던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리산에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된다면 4대강 사업에 이어 우리나라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 국립공원 지리산의 환경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지리산환경단체들도 4일 성명을 통해 "케이블카 요구자들은 자동차를 이용한 입산객들이 폭증하는 상황에 지리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케이블카 설치

가 필요하다고 하나 산 정상까지 쉽게 입산을 허용할 경우 자연 훼손은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많은 탐방객과 비싼 이용료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생태 보전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리산국립공원은 생태환경 보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합당한 근거 없이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연훼손이 불가피한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승림사 청소년 템플스테이 인기



익산 승림사 템플스테이가 성적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한문 인성교육 템플스테이, 외국인 유학생 템플스테이, 외국인 노동자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는 익산 승림사(주지 지광)는 최근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청소년 관련 사고로 인해 보다 안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학부모들과 성적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익산 남성고 학생 39명은 8월 5일과 6일 여름방학 체험 학습 일환으로 승림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우리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한편 성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입재식에 이어 참선, 걷기 명상, 나를 찾

는 108배, 발우공양, 돌레길 포행, 다도체험, 스님과의 대화 등으로 진행했다.

지광 스님은 "전통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참가한 학생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더한층 성숙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바른 생활을 이어나가기 바라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재 학생(17세, 고1)은 "허무하루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다"며 고민을 토로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소중한 경험을 통해 나를 배려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보람을 표했다. 향후 승림사는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힐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로 피어난 미얀마 아이들의 꿈

지구촌공생회가 전주 정혜사 스님들의 염원을 담아 미얀마에 더포아 정혜학교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8월 6일 미얀마 양곤시 외곽 사우스다곤 타운십의 세인 페지 아웃 마을에서 더포아 정혜학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다.

기공식에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 사무처장 덕림 스님과 사찰단 일행, 남형권 KOICA미얀마 사무소장 등 한국 측 인사와 사우스다곤 타운십 종교부 대표, 더포아 사원학교 주지 더 꾸따라 사리 스님, 부지 후원자 더포아 씨, 마을 주민과 학생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미얀마는 비산 등록금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배움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있다.

미얀마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대한불교보문종 전주 정혜사 주지 지섭 스님과 신도들은 4월 26일 지구촌공생회를 통해 더포아 정혜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더포아 사원에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사원 인건 약 3,500여 평의 학교 부지를 마련했다. 더포아 사원학교를 후원한 더포아 씨가 학교 전기공사 비용 일체를 후원하기로 해 학교 건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손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이사장 월주 스님은 기념사에서 "지구촌공생회와 전주 정혜사에서는 학교 건립을 통해 아이들의 배움을 향한 꿈이 이루어



어짐과 동시에 사원과 교사, 주민들이 함께 학교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기대한다"며 "학교의 자립 운영을 위한 지역 및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할 때 지구촌공생회의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가 현재까지 지원한 교육시설 중 최대 규모인 더포아 정혜학교는 유치원과 초·중·등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교실 12칸, 화장실 8칸 및 급수 시설을 갖춘 지상 2층의 건물로 내년 2월에 완공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착한 벗들, 다문화 어린이 포교활동 '눈길'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착한 벗들(대표 화일)이 '2014 다문화가족 어린이 여름 캠프'를 개최했다.

7월 31일~8월 3일까지 김제 모악랜드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는 세계음식문화체험, 다문화이해 놀이, 치유명상체험 등 즐거운 놀이와 함께 참가 아동들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고 협력의 공동체 가치관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화일 스님은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포교가 절실한 때"라며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접할 수 있어서 힐링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불교캠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이번 여름캠프를 통해 "다름이란 틀린 것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하고 나아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갈 수 있는 또 다른 양식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다문화아동과 (非)다문화



아동이 함께 하는 어린이캠프를 지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착한벗들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다문화아동과 (非)다문화아동 참가자에 대해 별도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가 아동들의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로 구성된 보조교사진이 함께했다.

한편, (사)착한벗들은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마인드케어캠프'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 어린이 청소년캠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대표 지장, 동원사 주지)은 7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산청 법계사와 남원 실상사 등 지리산 일대에서 실시된 '제3회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에는 청소년 23명을 비롯해 전체 30명 참가한 가운데 지리산 천왕봉 새벽산행에 이어 백무동까지 걷기순례, 108배 절명상, 계곡물놀이, 스님과의 대화, 천은사 사찰답사 등이 진행됐다. 지리산마음캠프는 청소년들에게 국토사랑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자 매년 여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15회 어린이여름생태학교도 8월 1일부터 2박3일 동안 고창 선운사에서 초등학생 42명 등 총 6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펼쳐졌다. 생태학교에서는 선운산 에코트레킹, 계곡물놀이, 영화상영, 추적놀이,



초록باش 울퉁콘테스트, 관음사신림 백미영 선생님의 경제야 놀자, 최순예 한살림생활교육위원장의 건강한먹거리 강의 및 팔방수 만들기, 닭싸움 기마전 포리잡기 줄다리기 등 공동체놀이, 108배 절명상이 진행됐다.

입수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보다 많은 사찰과 단체에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새싹불교의 씨앗을 더 활짝 틔워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법주사 율화통 캠프... 일탈 청소년 감화

법주사와 충북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법주사 율화통 캠프'가 일탈 청소년 감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은 법주사는 2013년부터 소년사건 대상자나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숙리산 법주사에서 '율화통 산사캠프'를 진행 중이다. 이 캠프는 법주사 불교문화교육원(농인전)에서 하루 동안 명상체험과 요가, 숲 속 걷기 등을 통해 마음가짐을 다잡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 총 4차례 128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그럼에도 2013년 총 4차례 128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봉사활동 점수가 부여되는 혜택도 있어 학생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호응이 높다. 올해는 세월호 참사로 6월 한 차례 시행된 뒤 잠정 중단됐지만, 충북경찰청은 이 캠프가 위기 청소년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참여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환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름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돌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자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쉬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